

‘항저우 감동’ 장애인 국대 선수들 전남서 메달 경쟁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안게임에서 감동을 안겼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대를 옮겨 열린 경쟁을 이어나간다.

총 6061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엔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한다. 항저우 3관왕인 사이클 김정빈(전북장애인사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김정빈·이도연 등 항저우 메달리스트 총출동

클연맹)은 남자 4000m 개인추발과 남자 200m 스프린트, 남자 개인도로독주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시각 장애인 김정빈은 항저우 대회에서 4000m 개인추발, 18.5km 도로독주, 69km 개인도로에서

비장애인 경기파트너인 윤중현과 함께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김정빈은 음악을 전공한 뒤 밴드에서 기타를 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고 파트너인 윤중현은 현직 소방관이다.

장애를 가진 음악인과 비장애인 소방관이 하나의 자전거를 타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다.

항저우 탁구 3관왕 서수연(광주시청)은 이번 대회에서도 다관왕을 노린다. 서수연은 여자 단식과 혼성 복식에 출전한다.

2004년 의류사고로 패션모델의 꿈을 접고 탁구를 시작한 서수연은 항저우 대회에서 여자 단식, 여자 복식, 혼성 복식에서 우승했다.

세 딸의 어머니이자 만 51세의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인 이도연(전북장애인사이클연맹)은 이번 대회에서도 쉽지 않아 달린다.

이도연은 22.4km 여자 개인도로독주, 56km 여자 개인도로, 19.2km 혼성 팀릴레이에서 힘차게 손으로 페달을 돌릴 예정이다.

만 41세 때 핸드사이클에 입문한 이도연은 하계엔 사이클 선수로, 동계엔 노르딕 스키 선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항저우 대회에선 여자 도로 독주에서 우승하며 장애인아시아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다.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안게임 태권도 남자 80kg 이하급 금메달리스트 주정훈(SK에코플랜트)은 같은 체급에서 우승을 노린다.

화제를 모으는 선수도 있다. 지난 2월에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 김윤지는 수영 종목에 출전한다.

그는 동계체전 당시 노르딕스키 선수로 4개의 금메달을 획득, 대회 MVP에 올랐다. /연합뉴스



탁구 김영건



탁구 서수연

광주·전남 선수단 누가 뛰나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14년 만에 개최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1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1개 종목(선수부 28종목·동호인부 18종목(시범경기 2종목 포함)에 걸쳐 평소 알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의를 다진다.

광주시 선수단은 22개 종목에 선수 301명과 임원 및 관계자 119명 등 총 420명이 출전했다.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안게임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한 탁구 서수연(광주시청) 등을 주축으로 ‘안정적인 종합순위 한자리’를 목표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탁구, 수영, 양궁, 육상, 사격 등에서 다수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탁구 ‘간판’인 김영건과 김정길·박진철(이상 광주시청)은 항저우에 이어 각각 다관왕을

광주, 22개 종목·선수 301명 등 총 420명 출전...한자릿수 순위 목표
전남, 31개 종목·선수 458명 등 총 745명 출전...종합 순위 5위 기대

노린다. 광주장애인탁구협회 최행임 역시 금빛 스매시를 향해 기량을 펼친다.

수영종목에선 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의 김지향과 전정일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정진영도 이화속(광주장애인양궁협회)과 함께 메달 사냥에 다시 나선다.

육상에서도 김하은·방미주·이수연·김천현(이상 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이 금빛 메달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청 소속으로 아시아안게임에 출전해 은

메달을 거머쥔 장애인사격팀 박승우도 메달에 도전한다.

2023년 파리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6위인 정지승(광주장애인육상연맹),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세정(광주장애인조정연맹), 2023 몬트리올 세계보치아컵 2위 강선희, 론볼 서정용·이경숙(광주장애인론볼연맹), 역도 임주성(광주장애인역도연맹), 볼링 서영춘·전영아(광주장애인볼링협회), 태권도 홍민호(광주장애인태권도협회) 등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대회 학생 선수단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각장애 자매 김지혜(광주여고)와 김선정(광주세광학교)이 육상에서 각각 3관왕에 도전한다.

2023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경수(전대사대부고)는 남자 단식 금메달을 노린다.

제37회 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했던 지적축구는 대회 2연패에 나선다.

전남은 31개 전 종목에 총 745명(선수 458명·임원 보호자 287명)이 출전해, 종합 순위 5위를 목표로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친다는 각오다.

지난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현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클 박슬기(한전KDN), 론볼 송명준(전남장애인체육회), 볼링 이찬미(한전KPS), 신백

호(포스코CT), 당구 정선정(대신기공), 탁구 이창식(한전KDN), 김은희(전남장애인탁구협회), 육상 이미옥(한전KPS), 조경화(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격 이윤리(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금메달이 기대된다.

단체 세부종목에서는 축구 뇌성마비가 4연패에, 여자 좌식배구와 골볼 남자는 2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대회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카누, 배구팀은 올해 2연패 도전에 나서며, 축구, 골볼, 론볼 종목에서도 종합 1위를 노리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모사업으로 전남을 연고지로 창단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배드민턴팀’은 현역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또한 올 6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전남에 등지를 뜬 ‘좋은운동장 육상팀’의 전국장애인체전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볼 만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애인체전 ‘론볼’ ‘보치아’ 경기 인기

동계스포츠 컬링과 유사...나주·해남서 열린 경쟁

3일 개막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론볼’과 ‘보치아’ 경기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동계 스포츠 ‘컬링’과 유사한 이 종목들은 각각 나주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우슬체육관에서 열린다.

‘론볼’과 ‘보치아’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처음 시범 종목으로 도입됐으며,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았다. 두 종목은 자신의 볼을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스포츠다. 표적이 고정돼 점수를 획득하는 ‘컬링’과는 다르게 볼을 부딪쳐 표적구를 원하는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뛰어난 전략과 고도의 집중력, 탁월한 실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다.

‘론볼’은 ‘잔디에서 공을 굴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스포츠로 40m×40m의 평평한 잔디나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1~7개의 ‘링 크’로 나눠 경기를 하는 야외 스포츠다. 볼은 직경 116~131mm, 최대 1.58kg를 초과하지 않는 무게로 편심을 가지고 있어 볼을 굴리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가다가 5분의 3 정도의 거리부터 휘어져 포물선을 그리며 나아간다. ‘잭’이라 불리는 작은 표적구에 가까이 위치시켜 점수를 획득한다.

3일부터 8일까지 나주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론볼경기장에서 306명의 선수가 열정 가득한 경쟁을 선보인다. 전남도 소속으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아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동기 선수를 포함 24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보치아’는 광택 콘크리트, 목재, 천연 또는 합성 고무와 같은 재질의 12.5m×6m의 평평한 코트를 6개의 투구 구역으로 나뉜 한 쪽 방향으로 볼을 굴리는 실내 스포츠다.

볼은 규정상 흰색, 적색, 청색, 3개의 색상으로 무게 275g±12g과 둘레 270mm±8mm로 정하고 있다. 흰색 표적구를 먼저 굴린 후 적색, 청색의 볼을 굴려 최종적으로 표적구에 가까이 위치시키는 선수가 점수를 획득한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해남 우슬동백체육관과 우슬체육관에서 108명의 선수가 우승을 위한 열망을 표출한다. 전남도 소속으로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유원준 선수를 포함해 1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보치아’는 12.5m×6m의 평평한 코트를 6개의 투구 구역으로 나뉜 한 쪽 방향으로 볼을 굴리는 경기다.